
SASE(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학술대회 출장 보고서

2018. 6.22 ~ 6.25

국제개발협력센터

KDI 한국개발연구원

1 추진 배경 및 목적

- The SASE(Society for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회장: Gary Herrigel, Paul Klapper Professor 미국 시카고 사회과학대학) 학술조직위에서는 KDI 개발 연구실 신원규 전문위원(국제학 박사: 국제경제/개발정책)을 국제경제질서(통상분쟁과 협력: SASE Presidential Panel on ‘Changing Dynamics of Global Trade)의 패널리스트로 초청.
- The SASE는 1989년에 설립된 사회과학(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분야: 사회경제학/제도주의학과 경제학)에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단체 중 하나로 Socio-Economic Review(Oxford Univ. Press)라는 국제공인학술지를 발간하는 단체임 (이번 30차 정기모임에는 60여개의 동시세션 5개를 운영하여 발표 인원만 800여명, 약 1,000명이 참가)
- 특히, SASE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로 “세계경제와 분배와 정의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사회개발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범 분야를 다루고 있어, 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도 구축 가능
- 동 초청기회를 통해 KSP 사업기획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내용을 Asia-Africa 세션에서 소개하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연구결과를 공유하였음

2 출장개요

- 과제 : 국제연찬사업(21281001)
- 기간 : 2018년 6월 22일(화) ~ 6월 25일(토)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장지 : 일본(교토), 도지사대학교(Doshisha University)
- 출장자(총 1명)

#	성명	소속 및 직위
1	신원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 주요활동

- SASE Africa-Asia panel(Globaliz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참석 및 발표
- Presidential Panel(SASE Presidential Panel on "Changing Dynamics of Global Trade) 참석 및 발표

□ 주요패널 발표자 및 참가자(당사자 제외)

#	패널	참가자, 소속	역할 및 발표주제
1	Africa-Asia	Kae Amo, EHESS	Session Organizer
2	Panel: Global Reordering and New Model of Development. Perspectives from Asia and Africa.	Eloi Ficquet, EHESS	New Relations between Old Partners: Ethiopia's Relations with Asian Countries
3		Herve Lado, ESSEC Business School	Africa-Asian Relations and New Models of Development in Africa
4		Yoichi Mine, Doshisha University,	Discussant
5		Abdoulaye Diane, African-Asian Research Center,	Discussant
6	Presidential Panel: Changing Dynamics of Global Trade (Roundtable)	Gary Herrigel, University of Chicago (USA)	Session Organizer (SASE President)
7		Seung-Youn Oh, Bryn Mawr College (USA)	Moderator 미중관계 전문가 (중국 산업정책과 혁신분야)
8		Kozo Kiyota, Keio University (Japan)	Panelist 일본 GVCs 및 국제경제 전문가
9		Adnan Naseemullah, King's College London (UK)	Panelist WTO, 무역제도발전 전문가
10		Till van Treeck,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Panelist 세계금융화, 불평등, 노동/소득분배 분야 전문가

*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초청인사 소개는 프로그램(첨부 1)과 아래 홈페이지 주소 참조

1. African and Asia

<https://sase.confex.com/sase/2018/meetingapp.cgi/Paper/9371>

2. Presidential Panel

<https://sase.confex.com/sase/2018/meetingapp.cgi/Session/3696>

3 출장일정

일정

일자	시 간	내 용	비 고
6/22(금)	15:20-17:10	인천 출국	KE 725
	19:00	호텔체크인	
	19:00-21:00	Africa-Asia panel 발표자 및 토론자 사전회의	
6/23(토)	09:00-17:00	Africa-Asia panel 발표 및 SASE회의 참석	
	19:15-21:00	환영만찬	
6/24(일)	09:00-17:00	Presidential Panel (16:15) 및 회의 참석	
	19:15-21:00	Gala 만찬	
6/25(월)	8:00-10:30	Gala 조찬(호텔체크아웃)	
	10:30-13:15	회의 참석	
	18:25-20:15	오사카 -> 인천	KE 726

4 기타사항

항공편 정보(항공편과 교통비 주최 측에서 제공)

○ 신원규(총 1명)

항공편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KE 725	인천	오사카	6/22(금) 15:20	6/22(금) 17:10
KE 726	오사카	인천	6/25(월) 18:25	6/25(월) 20:15

호텔 정보(숙박 2박 3일은 주최 측에서 제공하고, 1박은 KDI에서 제공)

호텔명	NOKU, Kyoto, Roxy-Kyoto Hotel
주소	205-1 Okura-Cho Karasuma-dori Marutamachi sagaru, Kakagyo-Ku Kyoto-city, 604-0861, Kyoto
연락처	+81-075-211-0222

5 주요 발표내용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SASE) Conference

Global Reordering: Prospects for Equality, Democracy and Justice

22nd ~ 25th June 2018

SASE Presidential Panel on "Changing Dynamics of Global Trade"

- 일 시: 2018년 06월 24일, 16:15-17:45
- 장 소: Doshisha University, Imadegawa Campus: Ryoshinkan Building RY408
- 주요 참석자 : Gary Herrigel, Paul Kalpper Professor in the College and the Division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Chicago (SASE President); Seung-Youn Oh, Bryn Mawr College (USA); Kozo Kiyota, Keio University (Japan); Adnan Naseemullah, King's College London (UK); Till van Treeck,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외 50여명
- 주요내용
 - 세계무역환경과 중-미 무역전쟁에 대한 전망 및 대응
 - 본 연구는 참석자의 최근 2~3년 연구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논의를 전개(자세한 내용과 발표 자료는 첨부파일 2와 3을 참조)

- 1) Trade gains from the rulings of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2018, *World Trade Review*),
- 2) Firm's responsive behaviors in WTO Trade Disputes: Countervailing Cases on Korean DRAMs (2017, *Journal of World Trade*),
- 3) When an Importer's Protection of IPR Interacts with an Exporter's Level of Technology: Comparing the Impacts on the Exports of the North and South (2016, *World Economy*),
- 4) Financialization and industrial policies in Japan and Korea: Evolving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and loss of state capabilities (2017,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 5) Evaluation on the Exports Competition of Korea with China in Sophisticated Markets (2018, *Journal of Korea Trade*)
- 6) The K-Pop Success: How Big and Why So Fast? (2017,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 SASE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성공적으로 학회를 개최하고 있고, Scio-Economic Review(Oxford. Univ. Press)라는 저널발간을 통해 학술활동과 학술연구 네트워크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과학분야(정치/경제/사회)에서 자타 공인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학술단체임.
- 이번 정기학회에 약 1,000명이 참석하는 등, 다양한 국적의 사회과학 전문가 및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글로벌 사회경제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습득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었음.
- 특히 이번 년도에서는 현 우리나라사회가 직면한 소득분배 문제와 불평등,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디지털화 및 4차산업), 세계화(imbalance) 금융화, 미-중 무역전쟁 등 전 세계 국제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발전의 제 문제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음.
- 학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해외 우수학술도서의 저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토론자로부터 서평을 듣고 논하는 “Author meet the critics”, 학회장이 주요 이슈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하는 “Presidential Panel”과 “featured speaker”는 주목 할 만함.
 -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경제, 정치, 및 사회 문제를 논의 하고 진단하되, 시의성 있고 중요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하는데 SASE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 개발협력분야에 있어 주요 담론과 연구 동향으로는 중국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개발협력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의외로 개발도상국 수원국 출신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중국의 개발자본과 개발협력 방식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
 - 중국식 개발자본과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아직 불투명한 편이나, 상당한 규모로 알려짐. 그간 서구식 개발협력 방식보다 수원국에게 자율성과 사업계약 협상과정에서 보다 큰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음.
 - 단,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공여국과 수원국 양쪽이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훼손시키거나, 수원국의 취약성이 증대된다는 반론적인 시각도 신선했음.

- 중국의 개발자본의 유연성은 오히려 수원국 정부의 거버넌스적인 취약성(부패)을 심화하고, 원조의존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대 중국 차관 유입의 증가로 정부부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유연성의 역설을 지적하였음.
 - 반면에 서구유럽식 또는 미국식 개발협력 사업은 수원국의 정치 거버넌스, 시장 및 정책적 개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사업의 성과와 책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지만,
 - 이러한 요인이 수원국의 주체의식과 오너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자각을 일으키고, 취약한 거버넌스에 대한 자구책과 원조 의존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
- 중국의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와 “중국몽” 달성이라는 과정에서 중국 자본이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구유럽의 개발자본의 대안으로 중국의 개발자본이 부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자본을 활용함에 있어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다는 이론적 논리와 사례는 매우 흥미롭고 신선하였음.
- 한국의 KSP와 같은 지식공유사업은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정책과 제도측면에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운영 및 평가/관리해야 하는 수원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Asia-Africa 패널과 관련 연구자에게 한국의 고유한 강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우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KSP 발전방안 연구나 지식공유사업 적용에 대한 지역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SASE와 같은 학회를 플랫폼으로 활용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관련 담론형성에 기여하는 방법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이번 학회에서 지식 네트워크로 확보한 다양한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 분야의 지역/분야 국제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발협력분야의 성패와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요인인 “기술”로 인식되는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시각(다양한 지역출신, 지역연구자, 분야연구자)을 가지고 공동연구로 실시 가능
- 미국, 유럽, 아시아(중국, 일본, 한국)적 개발협력사업의 방식과 지식공유사업의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KDI-SASE”와 공동세션으로 발표세션을 구성하는 등, 연구결과의 확산의 채널로 SASE를 활용.